

한국문학 연구의 사상적 전회

장문석*

[서평] 김종욱(2022),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역락, 472쪽

1. 1945년 서울

1945년 9월 소설가 박영준은 길림성 교하현에서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서울,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만주’에 도착한 지 7년 되는 해였다. 박영준의 수중에는 집 한 채 살 정도의 돈이 있었다. 교하에서 길림으로. 길림에서 길회선(吉會線) 열차에 올라 용정으로. 용정에서 도보로 두만강을 건너 회령으로. 이후 그는 나남, 청진, 주을을 거쳐 서울을 향해 걷는다.

서울에 도착한 박영준. 그런데 그가 만주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 더욱 의아한 것은 박영준 스스로 돈의 행방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 탕진, 사기, 강탈 등 다양한 의혹이 잇따르지만 그는 경과를 뚜렷이 해명하지 않는다.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박영준의 침묵으로부터 그의 윤리 의식을 읽어 낸다.

허준의 「잔등」에서는 만주의 때를 벗기기 위해 주을온천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박영준의 경우에는 두만강을 건너면서 몸에 찌든 만주의 때를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만주에서 가져온 돈도 없어져야 했다. 만주 칠 년의 죄책감과 함께 없어질 수만 있다면 돈 몇백 원쯤이야 그리 안타

까울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 이처럼 돈은 부끄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그 무엇이였다. 돈이라는 증거가 남아 있는 한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난기」의 주인공 민수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과거의 생활을 추궁해 보고 티 없는 구슬을 고른다면 조선은 어찌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옛동무를 찾아가 ××공장 자치위원회 조직 활동에 동참한다. 돈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과 함께 친일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나 반성도 어느 틈엔가 사라진다. (…) 이로써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은 않은 만주의 생활”은 박영준의 글쓰기 공간에서 사라진다. (pp. 326-327, 이하 페이지수만 표기)

만주에서 가져온 돈은 만주에서 박영준이 “일본놈 밑에서 잘 살았”(325)다는 질타와 조소의 증거였다. 박영준은 돈을 망실하지만 그것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돈을 잃어버림으로써 부끄러운 과거 역시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 진지한 고백이나 반성은 없었지만 박영준은 돈을 잃어버린다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만주의 삶에 거리를 두었고, “과거에 면죄부를 부여”한다(327). 그제서야 그는 만주의 경험을 “민족적 차별과 저항의 서사”(327)로 제시한 소설을 발표할 수 있었다. 한두 해 재만 조선인의 삶을 소설로 제시한 후, 박영준의 문학적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이것이 박영준과 만주에 대한 작은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20년 혹은 30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박영준은 다시금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 세 편을 발표한다. 소설 세 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주의 기억을 제시한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조국과 동포를 내세워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과거의 흔적을 덧칠하기 등. 탈식민 신생국가 대한민국에서 중군작가로, 대학교수로 살아갔던 그의 “마음 깊숙한 곳”(330)에 “일본의 앞잡이”(329)라는 낙인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까닭일까. 저자는 박영준의 선택에 대하여 쉽

게 평을 내리지 않는다.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저자는 신중하다. 하지만 저자가 판단을 방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박영준이 사례를 통하여 “삶은 그 옹고 그림의 경계 위에서 가까스로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선택의 무게”(335)를 숙고한다.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의 이념과 실천을 ‘나라 찾기’로, 해방공간 한국문학의 이념과 실천을 ‘나라 만들기’로 바라보는 것이 한국문학사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시각이었다.¹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해방을 ‘나라 만들기’로 이해한 기존의 시각과 긴장을 형성하면서 그 의미를 보다 입체적이고 생산적으로 검토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박영준의 이동과 문학적 실천 역시 이 책이 주목하는 1945년 이후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성찰하도록 하는 한 가지 사례다.

20세기 초반 제국/식민지 체제 아래의 아시아는 지리적 공간인 동시에, 여러 민족이 이동하고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기획이 시도되는 장소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냉전 질서하에서 동아시아가 분단된 국민국가 단위로 재편되면서 아시아는 망각된다. 이 책은 1945년의 역사적 의미를 “동아시아에서 제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던”(354) 분기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전의 날이었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해방과 독립의 날이었으며, “동아시아에서 민족대이동의 서막”(374)이 오른 날이기도 하였다. 중국, 조선, 타이완 등으로 이주하였던 식민자 일본인은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야 했으며, 자의 혹은 타의로 일본, 만주, 남양군도, 사할린 등으로 이주한 조선인과 타이완인 역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저자는 1945년에 시작된 ‘민족대이동’을 주체의 이동에 한정하지 않고, “‘대동아공영권’이 내포하던 다민족적·제국적 성격이 붕괴되고 동아시아라는 공간이 민족적 질서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374)으로 이해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 www.kci.go.kr
1 김윤식(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p. 142.

성립 또한 제국적 질서의 붕괴 이후 민족적 질서가 성립하고, 식민지의 주체가 국민적 주체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걸쳐 있었다. 국민적 주체의 정립과 국민국가 단위의 정치 질서의 수립은 1945년 이전 식민지의 경험을 “은폐하거나 망각”(300)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고, 식민지의 “잡종화된 삶의 기억”을 “단순하고 단일한 것”(300)으로 재구성하였다. 박영준이 ‘만주’에서의 다민족 잡거 경험을 민족적 억압의 서사로 대체한 것이 그 예이다. 아시아에 대한 “망각과 은폐를 통해 ‘창조된’ 기억은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로 이어진다.”(365)

저자는 제국의 시대로부터 국민국가의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망각하거나 은폐된 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성찰한다. 1) 문화적 다양성의 단일화. 국민국가의 성립 과정에 발맞추어 “제국의 인터내셔널한 잡종성”(154)과 지역 및 종족에 따라 다양한 성립한 “문화적 개별성”은 국민국가의 “단일한 국민적/국가적 정체성으로 강제 통합”(372)된다. 언어의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1945년 이전 동아시아에서는 “일상 ‘모어’와 공식 ‘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언어적 상황”(361)이 존재했고, “이질언어성” 사이에서 “언어를 중개하는 통역”(295)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45년 이후에는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이 포착한 것처럼, “언어민족주의”(371)의 입장에서 단일한 민족의 언어, 혹은 국민국가의 언어가 강조된다. 2) 가해 경험의 은폐. 만주국 성립 이후 재만조선인들은 “이주민, 식민지인과 같은 마이너리티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 오족협화의 이념 아래 만주국의 구성원”(243)이 되기를 욕망하였고, 조선인은 “일본인-조선인-만주인이라는 민족적·종족적 위계질서 속에서 지배자이자 동시에 피지배자라는 이중적인 속성”(364)을 가졌다. 재만조선인은 “일본인에 의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364) 역시 수행하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해방 이전의 “민족”(365)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의 역사”(364)는 전면화되고, “가해”(365)는 망각된다. 재만조선인이 만주에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366)고 식민주의와의 “은밀한 공모와 타협”(366)

을 했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재만조선인의 만주 경험은 “민족적 억압의 경험으로 재구성”된다. 3) “정치적·이념적 타자에게 가해졌던 물리적 폭력”(386)의 은폐. 1945년 이후 국민국가의 성립이 냉전의 도래와 겹쳐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물리적 탄압이라는 외피 아래 다양한 형태로 마이너리티”에게 “폭력”(386)이 가해진다. 저자는 국가폭력의 경과에 대하여 “이념적 공세는 제도적 학살로 확대되었고 통치권력에 의해 면죄부가 부여된다.”(387)라고 엄정하게 진단한다.

하지만 망각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과거를 온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습속화”(363)된 기억과 경험은 무의식에 잠재하여 있다가 무언가를 계기로 회귀한다. 박영준이 1960년대에 다시금 해방 이전의 과거를 대면하고, 그 경험을 다시 소설로 써야 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다만, 저자는 박영준의 선택과 그가 제시한 논리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334)라고 단호한 진단을 내린다. 박영준은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가졌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동안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334) 한다는 지혜 혹은 기율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귀환하는 것은 은폐된 죄의식만은 아니었다. 20세기 초반 제국/식민지 체제 아래의 아시아라는 사상과제, 곧 아시아에 대한 인식, 아시아에 관한 사상 연쇄, 혹은 아시아를 매개로 한 사상적 기투(project)가 귀환한다.² 사상은 “문제적 상황에 대한 해답의 형식으로 제출되고 성립된다.”³ 사상으로서의 아시아를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이 제시하는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에 귀 기울인다.

2 야마무로 신이치(2018), 정선태·윤대석 역,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참조.

3 김윤식(2015), 「문제적 상황으로서의 사상사적 기술」, 윤대석 편, 『김윤식 평론 선집』, 지식울만드는지식, p. 19.

2. 1970년 전후 제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김광식의 『식민지』(1963), 박영준의 「전사시대」(1966), 선우회의 『물결은 메콩강까지』(1966~1967), 박영준의 「죽음의 장소」(1973), 최인훈의 『태풍』(1973), 박영준의 「필립의 여인」(1974), 선우회의 「외면」(1976), 김석범의 『화산도』 1부(1976~1981). 1945년으로부터 20~30여 년 시간의 격차를 두고 “국가의 역사에서 망각된 역사적 진실” 혹은 “역사적 기억”(370)들이 귀환한다.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 주목한 텍스트들은 1945년 전후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귀환의 이유는 개별 작가와 텍스트마다 다르겠지만 귀환의 역사적 맥락과 조건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시간적 조건으로는 20~30년, 곧 한 세대 정도의 역사가 축적되고 거리가 확보되었다. 공간적 조건으로는 “해방 이후 삼팔선과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갈라파고스화 된 지리적 상상력”(『머리말』)의 변동을 염두에 둘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외부와 소통이 어려웠던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1970년대 초반 미중수교 이후 동아시아의 데탕트 등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아시아 국가들과 소통을 시작한다. 1965년에서 1973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 참전은 아시아에 대한 다른 환기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공간적 조건의 변화에 연동하여, 해방 이전 ‘만주’의 경험 및 해방 이후 귀환의 경험, 혹은 해방 이후 제주도의 경험 등은 한국현대문학으로 귀환한다. 이 귀환의 과정에서는, 앞서 박영준의 사례에서 보았듯 피해와 가해, 혹은 연대와 침략이라는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 내재한 아프리카와 ‘윤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시기 한국문학은 현실과 이상을 교차하면서 만들어 간 아시아라는 기투를 개인의 윤리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다.

김광식의 『식민지』는 학병에 동원된 식민지 청년 한동사에 주목한다. 그는 “제국의 군인이 되어 일본인으로 죽거나 혹은 망명정부를 찾아가 조선인으로 죽거나”의 이항대립 사이에 위치한 “평범한 인물”(405)이었다. 학

병 탈출 이후 그는 신경의 “일상” 안에서 여러 민족의 문화가 만들어 낸 “이국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408)을 즐기는 한편, “정신적 망명자”(410)인 일본인 친구와 우정을 나눈다. 한동시는 “죽음을 무릅쓸 만큼 용기를 지닌 존재가 아니었”(405)지만, 제국의 ‘끄나풀’이 되는 것 역시 “거부”(410)하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그는 세계의 부조리와 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겁쟁이지만, 그 폭력이 누군가에게 옮겨짐으로써 늘상 반복되는 악순환의 회로를 차단하는 용기를 지닌”(411)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동사가 해방 이후 구 제국 일본인을 타자화하지 않고, 그들을 연민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 역시 “삶에서 지켜야할 인간적인 존엄”(411)을 지킨 덕분이었다.

김석범의 『화산도』는 작가의 위치가 구 제국 일본이라는 점에서, 창작의 언어가 일본어라는 점에서,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해방 이후 4·3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설과는 놓여 있는 위치가 다소 다르다. 하지만 해방 이후 국가 성립 과정에서 억압되거나 망각된 것을 재현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저자는 김석범의 『화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제주도 지역사회”(386)에 가한 폭력과 귀환한 “재일조선인”(387)에 대한 추방을 성찰하면서, 두 사람의 경계인 형상에 주목한다. 해방 이후 제주로 귀환했다가 다시금 일본으로 망명해야 했던 남승지는 1945년 이후 동아시아의 민족적 질서가 재편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지역적 경계인”(381)이었고, 그 자신 부르주아 계층이지만 4·3사건의 주도세력과 연결되어 있던 이방근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청산되리라 믿었던 친일 세력”(383)이 냉전의 도래와 함께 좌우익 모두에서 부활하는 정치적 현실과 불화하였던 “이념적 경계인”(381)이었다. 『화산도』는 두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387)과 “식민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적인 민족현실에 대한 비판의식”(389) 등을 길어 올린다. 저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을 공유했기에 남승지와 이방근이 “서로를 이해”(389)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설이 강조하는 윤리적 책임에 주목한다.

일제강점기동안 친일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망각한 인물들이나, 4.3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도 이념으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인물들과는 달리, 이방근은 비록 역사적으로 정당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복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윤리적 책임을 묻는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방근은 자신의 선택에 가장 엄격했고 자신의 행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윤리적인 주체였던 것이다.(385-386)

이방근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인물에 대한 응징”이자 “민중들의 희생을 초래한 역사에 대한 비판”(385)의 맥락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며, “반민족·비윤리적 세력”(386)을 처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거둔다. 저자는 이방근을 “인간은 누구나 내적 의지와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385)라는 정언명령을 실천한 윤리적 주체의 사례로 든다.

선우휘는 베트남 전쟁을 다룬 『물결은 메콩강까지』와 1945년 전후를 다룬 「외면」을 발표하였다. 「외면」은 제2차 세계대전에 군속으로 참여하여 전쟁 후에 전범으로 죽음을 맞은 조선인의 사례에 주목한다. 조선인 임재수=하야시는 “일본국민이 되기를 선택”하고 “부끄러운 내부”(456)였던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억압”(455)하고 배제하였고, 그의 내면적 억압과 폭력은 “미군 포로들에 대한 외부적·신체적 폭력”(454)으로 드러난다. 종전 후 전범재판 과정에서 임재수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기를 시도한다. 그에게 민족적 정체성은 “선택 혹은 이행의 과정”(456)이었던 것이다.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대신에 민족적 복귀의 정당성”(456)을 강조하였던 그는 결국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직시”(457)하지 못하였다. 선우휘의 베트남 주둔 한국군 방문과 나란한 『물결은 메콩강까지』에서는 “국가적 정체성과 배치되는 개인적 의지나 선택

은 불가능하다”(436)는 인식을 보여 준다. 더욱이 이 소설에 나타나는 “베트남 참전의 실제적인 동기를 은폐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을 운명 공동체로 동일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베트남 참전의 비윤리성을 국가주의를 내세운 공범의식으로 은폐하는 한편 개인적인 속죄와 희생을 통해서 희석시킨다.”(437) 결국 『물결은 메콩강까지』에서 베트남은 “속죄의 공간이며 희생의 공간”으로 제시되며,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죄는 모두 사라지고, 희생이라는 숭고성만이 부각된다.”(439)

최인훈은 『태풍』은 인도네시아 자바수용소에서 근무하던 조선인 포로 감시원이 고려독립청년당을 조직하고, 종전 후 인도네시아 민중의 탈식민 무장투쟁에 참여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둔 가상소설”(461)이다. 오토메나크는 애로크[한국] 사람이지만 나파유[일본]의 정신을 신앙처럼 간직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장교로 참여한다. 그는 나파유[일본]군의 민간인 학살을 목도하면서, “나파유[일본]의 아시아주의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462)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아시아주의’라는 담론을 포기하지 않”는다(463). 그는 “나파유식 아시아주의가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 야욕을 은폐한 위장된 침략주의”임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을 단절하지 않는다. 그가 아시아주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한 “헌신”(464)이었다. 그는 “애로크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463)을 수용하면서 바냐킴으로 개명하였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운 기억”(464)을 직시한다. 저자는 바냐킴의 삶과 실천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 스스로 무국적자, 곧 난민(refugee)”이 된 “세계시민(465)”의 형상을 발견한다.

저자의 시도처럼 선우휘의 「외면」과 최인훈의 『태풍』은 겹쳐 읽을 때, 각각의 의미와 성취를 보다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선우휘는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서 사유하였고,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혹은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이중성을 가진 조선인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비해 최인훈은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464) 것으로 사유하였으며, “자신의 의지로 어느 국민국가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국적자의 길”(464)을 걷는다. 그 길은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 혹은 망각을 요청하는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길은 “한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과거를 용서할 수 있”으며 “부활”(464)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담은 길이였다. 물론 그 부활이 일회적인 사건이나 결단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의 부활은 “30년”(464)의 시간 동안 자기성찰과 실천, 그리고 시행착오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었다.

저자가 『식민지』, 『화산도』, 『물결은 메콩강까지』에서 발견한 다양한 사유의 계기들 역시 『태풍』이 걸어 올린 아시아주의에 기반한 세계시민의 형상을 심화하고 확대한다. 『식민지』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과 『화산도』에 나타난 자신의 행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지는 윤리적 주체는 『태풍』의 숨은 주인공인 ‘아이세노딘의 호랑이’ 토니크 나파유티의 삶과 윤리를 상기한다. 나파유티(일본) 이민자 2세 출신인 나파유티는 『식민지』의 신경처럼, 여러 민족이 잡거하는 공간과 『화산도』의 제주도처럼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이라는 지역공동체의 문화 안에서 성장한다. 나파유티 역시 아시아주의를 신념하였기에, 아시아의 해방을 이념으로 내세운 제국 나파유티(일본)군의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진주에 협력하고 나파유티군과 아이세노딘 민중의 갈등을 조정한다. 하지만 제국 나파유티군이 아니크(중국) 이민자를 학살하면서 그 폭력성을 드러내자, 나파유티는 “자신의 잘못을 벌하고 식민주의 세력의 폭력성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차별”한다(정호웅). 오토메나크는 나파유티를 애도하였고, 『화산도』의 두 지식인이 그러했듯 그의 삶의 태도에 깊이 공감하였고, 나파유티를 매개로 아이세노딘 민중의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토메나크의 부활의 근거에는 피해와 가해, 혹은 연대와 침략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자리하고 있다.

윤리적 층위에서 수행된 아시아라는 기투는 아시아에 대한 공간적·지

리적 인식의 확장과도 연동된 것이었다. 『물결은 메콩강까지』의 창작과 선우휘의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방문이 겹쳐 있듯, 『태풍』의 창작 역시 최인훈의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기지 방문이 겹쳐 있다. 『물결은 메콩강까지』에서 월남 및 한국전쟁 참전을 경험한 남기욱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여기는 바로 십여 년 전의 코리아-서울이 아닌가?”(435)라고 언급한다. 그는 베트남과 한국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운명공동체”(435)로 보았으며 아시아의 동일성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최인훈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중국이 있는 극동하고는 전혀 다른 고장”이라고 말하며, 『태풍』의 오토메나크 역시 아이세노딘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군요?”라고 반문한다. 최인훈과 오토메나크는 아시아의 비균질성에 유의하였다. 아시아의 동일성에 주목한 선우휘가 『물결은 메콩강까지』에서 “개인의 선택을 부정하고 국가적 정체성만을 강조”(437)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아시아의 비균질성에 유의한 최인훈은 『태풍』에서 “민족과 국민을 넘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묻는 지점까지 나아간다.”(465)

김광식, 선우휘, 김석범, 최인훈이 다시금 국민국가 성립 이전 동아시아의 제국/식민지 시대를 재현한 것은 해방으로부터 20~30여 년이 지난 후였다. 『태풍』에서 나과유의 제국적 주체였던 오토메나크가 바나킴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부활하는 데 걸린 시간 역시 30년이다. 30년이라는 거리와 삶의 무게를 받아안으며 한국의 문학자들은 동아시아 제국/식민지의 유산을 다시 질문하였다. 그 유산은 여러 민족이 위계적으로 갈등 속에 공존하였던 잡거 경험에 대한 성찰인 동시에, 피해와 가해, 혹은 연대와 침략의 이중성에 대한 윤리적 질문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주체 형성에 대한 탐색이었다.

동아시아 제국/식민지의 유산에 대한 질문은 1945년 이후 국민국가와 국민국가의 문학사가 망각한 질문을 환기한다. 이 점에서 이들 문학자의 소설 창작은 과거 사건의 역사적 복원의 의미를 넘어서 네이션=스테이트에

내재한 ‘제국’이라는 원리의 반복적 회귀로 이해할 수도 있다.⁴ 그리고 1970년을 전후하여 제국/식민지의 유산을 성찰한 한국문학은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세계시민의 형상을 길어 올릴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세계시민의 계기와 조건이 1970년 전후의 몇몇 문학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1960년 4.19혁명 직후 박연희는 중일전쟁의 가해 경험을 직시하면서 탈민족적인 아시아의 가능성을 가늠하였다.⁵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사상적 유산을 경유한 한국문학의 지평도를 보다 넓고 깊게 그려 볼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침략과 연대라는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 내재한 아포리아를 직시하면서, 아시아를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시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⁶

3. 1919년 이후 ‘만주’, 북경, 상해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으로부터 깨우친 것 가운데 하나는 최인훈이 『태풍』에서 제시한 무국적자의 형상이 사변적 실험과 문학적 상상인 동시에, 한국현대문학의 사상사적 맥락과 역사적인 실천과도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학적 실천에 근거한 아시아라는 사상연쇄의 구성 가능성. 이 책은 망각된 사상과 실천의 계보를 끌어올린다.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국민적 정체성 역시 모호하진 마찬가지였다.

4 가라타니 고진(2008), 조영일 역, 『역사와 반복』, 도서출판b, p. 40.

5 김진규(2018), 「박연희 소설 속 냉전기 동아시아에 대한 탈민족적 인식: 미완 장편 『방향』과 『갈증』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6 다케우치 요시미(2004), 서광덕·백지운 역, 「일본의 아시아관」(1964),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pp. 206~221 참조.

예컨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자 일본제국의 신민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많은 이들이 만주를 망명지로 선택했다. 석주 이상룡 역시 그런 망명객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근대 국가가 인구 관리를 통해 보장하는 개인의 안전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국적자의 신분을 선택했다(231).

무국적자에 대한 저자의 통찰은 1920년대 초반 “남만주 일대의 항일단체와 독립군단”(222), 특히 “삼원포에 자리잡은 정의부”(230)와 그 실천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식민지 경성에서 간행된 천도교 잡지 『개벽』에 실린 신숙의 「남만(南灣)을 다녀와서」(1924)와 이돈화의 「남만주행」(1925)은 “내밀하게 소통하면서 남만주 조선인 자치운동을 이끌던 정의부의 활동”(230)을 식민지 조선의 민중에게 전달하였다. 저자는 두 글의 필자에 대한 변증과 탐색을 통해, 두 편의 글이 품고 있는 “풍부한 역사적 맥락”(221)을 풍요롭게 복원해 간다. 당시 남만주의 독립운동 세력은 정치적 지향에 따라 “분열”(224)과 재편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모색 중에 있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코민테른과 협상하였던 신숙은 북경으로 돌아가는 경로에서 “이상룡을 비롯하여 남만주의 공화파”(224)를 방문한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회합”은 한시 5편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전달된다. 이상룡은 검과 축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자치를 통한 실력 양성”과 ‘무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227)이라는 메시지를 조선의 민중에 전달한다. 이돈화는 삼원포의 ‘남만주자치본부’를 방문하고 그곳을 하나의 “사회”(230)라고 명명한다.

식민지화 이후 제국 일본의 신민되기를 거부한 조선인들은 ‘만주’로 망명하면서 스스로 무국적자의 신분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만주에서 자발적 무국적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순간 일본제국의 인구 관리 체제에 포획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관원의 부당한 횡포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232) “안전을 보호해 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빈약한” 재만조선인의 불안정한 위치 가운데에서 ‘자치’ 개념이 모색된다. ‘자치’는 “‘자발적 무국적자’들이 자유와 안전을 추구

하는 방식”(232)이자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재만조선인이 만주에서 추구한 ‘자치’의 꿈은, 1920년 전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라, 제국 및 식민지라는 콜로니얼한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사회’를 중심으로 모색되었던 동아시아의 사상사⁷⁾와 공명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상론을 비롯한 재만조선인의 “자치의 꿈”(233)은 만주국 건국 이후 종말을 고한다. 만주국 성립 이후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구성원으로 선언”되었지만 “실질적 권리를 갖지 못한 외국인, 곧 일본제국의 신민”에 불과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주국 영토에 “거주하면서도 통치 대상에서 벗어난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지만 “치외법권이 박탈된 이후 만주국과 일본제국 모두의 통치 대상이 되는 이중적인 지배에 직면”하게 된다(245).

저자는 역사적인 실패와는 별개로 “압록강 너머에 풍문처럼 존재하던 자치의 풍경”(251)을 복원하고 연대의 이상을 길어올린다. 자치와 연대의 첫 번째 풍경. 1920년대 후반 남만주의 조선인 사회주의자. 코민테른 12월 테제(1928. 12.) 이후 일국일당의 원칙에 따라 조선인 사회주의자 역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른다. 1930년대 남만주 반석에서는 “최초로 항일유격대가 결성”(249)하였으며,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연대”(234)를 지향한다. 만주사변 이후 조중 양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제국 일본과 만주국에 맞서 연합 작전을 수행하였다. 1932년 반석현성 포위는 실패하지만, 이후 “남만유격대,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249) 등으로 진화하게 된다.

자치와 연대의 두 번째 풍경. 조금 시간을 거슬러 1920년대 중반 북경의 아나키스트. 제1차 국공합작에 공명하며 안창호는 류기석과 함께 길림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이상촌 건설”(160)을 위한 부지를 답사하였다. 중국 작가 루쉰이나 바진과도 교류하였던 류기석은 “아카니즘적 계급문학론”(165)의 입장에 섰다. 후일 「삼십년 방랑기」에서 어머니의 재가로 중

7 요네타니 마사후미(2010), 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그린비, pp. 132-147 참조.

국인 양부 아래에서 중국인의 정체성을 수행하는 삶을 살다가 1919년 3월 13일 용정 만세운동에서 중국옷을 입고 “등에 커다란 태극기를 두른 채 만세를”(169) 불렀던 왕이공이라는 무척 인상적인 존재를 제시했듯, 류기석 역시 조선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였다. 류기석은 「원한의 바다」(1927)를 통해 “일본제국과 군벌들을 축출하고 조선인과 중국인을 해방”하는 동시에, “모든 강권(強權)을 배척하고 무강권인 자유사회의 건설을 기도(企圖)한다는 위대한 꿈”(175)을 제시한다. 이 소설은 스스로 권력자가 되어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모순적”이고 “허망한” 꿈(175)에 머물지만, 이후 류기석은 “무명소졸”(175)의 위치에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지향하며 나아간다. 류기석의 실천은 제1차 국공합작(1924)과 공명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실패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대를 다시금 점화하고자 한다. 그는 “일본제국주의가 내세운 동양주의 혹은 아시아 연대론이 내포한 침략주의”(179)에 저항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대만·일본의 피억압계급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혁명론”(178)을 주장한다. 그의 꿈은 이회영, 이을규, 이정규, 신채호 등의 아나키스트의 실천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고 공명하면서 1928년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으로 이어진다.

차지와 연대의 세 번째 풍경. 1920년대 중반 상해의 홍사단원. 1924년 이후 홍사단원 주요섭은 점차 맑스주의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쑨원에 비판적이었던 이광수와 달리 쑨원이 국공합작을 이끌어 낸 점에 주목하고 그의 삼민주의에 공명한다. 주요섭은 「첫사랑값」(1925~1927)을 통해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을 수행하는 한편, “개인적인 의미 차원을 넘어 민족 간의 연대 혹은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145)을 중국인 여성과의 연애를 통해 제시한다. 동시에 그는 5·30 사건(1925) 이후 “상하이 유학생 단체의 좌우합작통일전선 운동”(146)에도 관여한다. 그는 “안창호의 민족유일당 노선을 지지하던 원동홍사단의 일원”으로서 “중국혁명의 이념적 기초를 세운 쑨원의 사상에 공감”(149)하였다. 후일 『아리랑』의 주인공이 되는 원동홍사단원 김산(장지락)이 그러했듯, 조선인 공산주의자와 민족

주의자들은 “민족과 이념의 차이를 불문하고” 제1차 국공합작을 기반으로 한 중국혁명에 참여하였다. 중국혁명의 성공이 조선의 독립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신념에 힘입은 바였다.

연대와 자치의 세 가지 풍경은 상해와 북경, 만주를 가로지른 류기석과 안창호의 현실적 실천과 사오홍에 대한 루쉰의 추천사라는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연결된다. 이처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1920년대 중국에서 조선인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수행한 연대의 작은 역사를 복원한다. 20세기 초 아시아의 연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각 개인들은 국가적·국민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내셔널리즘은 아직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152)기 때문이었다.

‘아시아의 연대’라는 이념과 실천은 현실의 무게를 만나 좌절하고 사라졌지만 저자는 연대의 실천이 가진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복원하고 음미한다. 동시에 저자는 연대의 실천을 현재에 다시 읽기 위하여 두 가지 통찰을 제시한다. 첫째, “통상적으로 인터내셔널리즘은 내셔널리즘이 자리잡은 뒤에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인터내셔널한) 연대 속에서 내셔널리즘이 나타났다”(153)라는 가설. 이 가설은 1970년 전후 국민국가의 문학 안에서 제국/식민지의 기억이 반복하여 출현하는 역사적 조건을 보다 긴 역사의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안하며, 내셔널리즘의 동아시아적 성립 과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둘째, 연대의 조건으로서 한시적 정주. 만주의 무국적자들에게 스스로가 개척한 만주의 ‘땅’은 영속적인 거주 터전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만주는 “언젠가 식민지 상황이 종식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다면 다시 떠나야 할 일시적인 거주 장소”였다(249). 저자는 조선인에게 “만주는 일시적으로 점유되는 장소”(249)였다는 점이 조선인과 중국인이 연대할 수 있었던 조건이 아닌지 질문한다. 가라타니는 인류가 유동적 수렵채집에서 정주로 나아가면서 교환이 불가결하고 절실한 것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정주 후 교환은 호수(중

여와 답례)에서 시작되었다.⁸ 무국적자의 한시적 정주는 복종과 보호(약탈과 재분배)나 상품교환(화폐와 상품)을 넘어서서 ‘호수의 고차원적인 회복’이라는 새로운 교환양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현실적 기반이 된다. 이 책이 길어 올린 1920년대 중국에서 전개된 자치와 연대의 움직임은 실패한 아시아의 연대의 역사적 기억을 성찰하면서, 그것의 현재적 재점화를 위한 사유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4. 1960년 동경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이인직과 이해조의 텍스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한 1894년 이래 한국현대문학의 성립에 관여한 중국 근대사상의 흔적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한다. 물론 이것이 한국문학의 전개에서 중국의 영향을 특권화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다. 자치와 연대의 한 사례인 1924년 북경 조선인 아나키스트의 이상촌 건설은, 제국 일본 동경의 문학자 무사노코지 사네아쓰와 ‘새로운 마을’ 운동, 중국의 문학자 주작인의 ‘신촌운동’와 연동하고 있으며, 무사노코지와 주작인, 그리고 조선인 아카니스트 이정규, 이을규, 오상순, 그리고 러시아 아나키스트 문학자 예로센코 등의 이동과 연대에 근거한 것이었다.⁹ 저자 역시 일본과 중국의 입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복수의 연결을 복원하고 상상할 때,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계기를 온당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문학은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지식을 수행한 것 이상으로 중국을 매개로 한, 그래서 중국식으로 변용된 서구 사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화의 통로가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며, 동아시아에 대한

8 가라타니 고진(2023), 조영일 역, 『힘과 교환양식』, 비고, pp. 83-89.

9 이은지(2015),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像)」,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pp. 262-276.

심상지리 또한 다층적”(59)이다.

『한국문학과 동아시아적 지평』은 1894년 이래 한국문학이 사상과제로서 아시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문학과 사상의 관계라는 의제를 감당한다. 김윤식은 한국근대문학사상사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문학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상사”라는 지향이 문학을 사상의 종속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한 적이 있다.¹⁰ 문학과 사상사의 관계에 대한 오랜 질문을 염두에 둘 때,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문학사의 새로운 이해와 사상사의 새로운 이해가 둘이 아님을 보여 주는 범례이다. 이 책은 문학사 연구에 대한 저자의 오랜 지혜와 고민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감싸며 새로운 연구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격정적인 어조”(96), “반복적인 율격”(97), “서술자의 시선”(406), 서술대상과 서술주체의 “시차”(195), “완료형 사선”으로서의 “플롯”(195), “소설의 구성”(406) 등 텍스트의 구조와 미학에 대한 섬세한 관심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에 이 책에서 저자는 “발표 시기”를 거슬러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적 순서”(346)에 따라 텍스트를 새로이 배치하고, “미완성의 텍스트이긴 하지만 이야기로서의 완결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138), “미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관점을 채택한다면 여러모로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165) 등과 같은 새로운 읽기의 방법을 시도하여, 텍스트의 완결성이나 미학적 진단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의미의 지평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 책은 ‘텍스트의 매혹’을 여전히 존중하면서도 텍스트로부터 새로운 사상과 역사적 사유의 실마리를 길어 올린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은 문학과 함께 “문학 바깥에 뜨거운 삶”(90)을 폭넓게 받아 안는다.

저자는 「서문」에서 텍스트에 대한 존중을 담아, “텍스트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세계”라고 언급한다. 지금까지의 문학사 연구가 연구자의 시각에

10 김윤식(1984),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pp. 3-4; 김윤식(2010),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pp. 645-655.

서 ‘성좌’나 ‘성군’을 만들어 낸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평면적인 이해로 귀결할 위험이 있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저자는 “별을 제 모습대로 보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저자의 제안은 “별들이 만들어 내는 ‘성단’을 상상”하는 것이다. 성단의 상상은 “바깥으로는 다른 성단과의 입체적 관계를 살”피는 동시에 “안으로는 그 성단의 가장 반짝이는 별빛을 돋보이게 만드는 어둠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다. 텍스트라는 별이 무리 지어 빛나는 그 자리와 모습을 존중하면서 구성된 입체적인 문학사의 가능성.

류기석이라는 매개항을 발견함으로써 머나먼 이국에 고립되어 있던 신채호 역시 한국문학과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류기석을 위시하여 정래동, 김광주 등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전모가 밝혀지는 순간, 그동안 존재조차 의심스러웠던 하나하나의 점들은 뚜렷한 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한국문학은 ‘동경문단의 경성지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187).

한국문학과 아시아라는 의제는 문학자의 새로운 실천을 주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그동안 한국문학사에서 고립되었던 문학자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하도록 한다.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통해 연구자들은 안창호와 신채호, 나아가 장지락(김산)이 참여하는 문학사, 나아가 량치차오, 캉유웨이, 쑨원, 루쉰, 바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학사의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신숙과 이돈화의 기행문, 신숙과 이상룡 등의 한시, 류기석의 소설 「원한의 바다」 창작, 소설 「광인일기」(루쉰) 번역 및 연극 「산하루」(허우야오) 공연, 주요한의 정치적 시편, 주요섭의 「첫사랑값」 창작 등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텍스트를 통해 한국문학의 언어횡단적 실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문학자의 비정과 텍스트의 발견은 쑨원의 국민혁명(1911), 러시아혁명(1917), 삼일운동 및 오사운동(1919), 국공합

작(1925) 등이 이어지는 “20세기 혁명의 시대”(185)와 걸음을 같이하였던 한국현대문학의 역사적 전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준다. 20세기 초반 세계사의 전개를 염두에 두고 유동하는 동아시아의 지평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역사철학을 구축하고자 한 염상섭의 문학적 실천 역시 그러한 사례 하나다.¹¹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한국문학 연구의 사상적 전회를 요청하고 그러한 연구의 범례를 제시한다.

이 책이 제안한 다양한 연결은 새로운 연결을 생산할 것이다. 1960년 일본 안보투쟁을 전후한 시기 다케우치 요시미의 문하에서 중국문학을 공부하던 청년 오무라 마스오는 조금씩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접근해 간다. 후일 그가 회고한 두 가지 장면. 첫째, 량치차오의 『가인지기우』 번역에 대한 검토. 량치차오는 도카이 산시의 『가인지기우』를 번역하다가 붓을 던진다. 도카이는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일본의 영향 아래 둔다. 량치차오는 “조선은 원래 중국의 속토다.”라는 논평과 함께 번역을 중지한다. 오무라는 도카이와 량치차오 모두 조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성찰하면서, 일본문학사와 전개를 검토하고 량치차오의 사상의 성취와 한계를 진단하는 데 조선 인식이 중요한 시금석임을 깨닫는다. 둘째, 그는 김소운의 『조선시집』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의 노래』를 접한 경험. 두 권의 번역서를 만나면서 오무라는 더 이상 중국 연구의 세계에 안주할 수 없다고 느낀다.¹²

량치차오, 도카이 산시, 김소운, 그리고 김산. 지금 한국의 문학사에 떠올리기 쉽지 않은 이름과 접하면서, 오무라는 한국현대문학으로 접근해 갔다. 지금까지는 오무라의 경험을 개인적인 관심과 1940~195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이 우연히 만난 결과로 이해하였다.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11 김은하(2024),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아시아담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2 오무라 마스오(2017), 광형덕·서영인·심원섭 역, 「도카이 산시의 『가인지기우』와 양계초의 번역」,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pp. 133-137; 오무라 마스오(2016), 「나의 8·15」,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소명출판, p. 688.

지평』의 가르침 덕분에 이제는 그 연결이 우발적인 마주침만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연구자의 선이해를 뛰어넘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단을 발견하는 것. 그 성단의 빛과 어두움을 겸허하면서도 신중히 살펴보는 것. 한국문학 연구의 사상적 전회를 수행하는 것. 그렇다면 연구자는 한국문학의 “아름다운 미리내”를 새로운 형상으로 만날 수 있을 터이다. 이 깨달음을 감사히, 또 즐겁게 새긴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2023), 조영일 역, 『힘과 교환양식』, 비고.
- 가라타니 고진(2008), 조영일 역, 『역사와 반복』, 도서출판b.
- 김윤식(2015), 「문제적 상황으로서의 사상사적 기술」, 윤대석 편, 『김윤식 평론 선집』, 지식음만드는지식.
- 김윤식(2010),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 김윤식(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 김윤식(1984),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 김은하(2024),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아시아담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진규(2018), 「박연희 소설 속 냉전기 동아시아에 대한 탈민족적 인식: 미완 장편 『방향』과 「갈증」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 다케우치 요시미(2004), 서광덕·백지운 역, 「일본의 아시아관」(1964),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 야마무로 신이치(2018), 정선태·윤대석 역,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 오무라 마스오(2017),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 오무라 마스오(2016), 『운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소명출판.
- 요네타니 마사후미(2010), 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그린비.
- 이은지(2015),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像)」,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